

# 8 · 15 光復 直前 · 後의 家政科 教育의 比較

Comparis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Korean School before with after Korean Independence of the Dominance of Japan Empire.

서울教育大學校 實科教育科 鄭 德 姬

漢陽大學校 家政管理學科 徐 炳 淑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 : Chung, Duk Hee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 Seo, Byong Sook

## 〈 目 次 〉

I. 序論

II. 光復 直前 · 後의 時代的 狀況과 學制

III. 光復 直前 · 後의 家政科 教科의 比較

IV.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home economics before and after Korean Independence of the dominance of Japanese Empire. The specific aims are to compare the subject organization, educational purpose and subject contents etc. of home economics in Korean school before with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of the dominance of Japanese Empire.

The methods to study were to analyze some documents (laws or regulations) and textbooks etc. at that 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primary school were 'Jaibong (sewing)', 'Kasa (household affairs)' just before Korean Independence of Japan in 1945. But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changed to 'Yori (cooking)', 'Jaibong' after Korean Independence in 1945. In 1946, 'Yori' and Jaibong were integrated in 'Kasa'.

In 1954, 'Kasa' changed to 'Silkwa (Practical Course)'.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middle or high girl school were 'Kajeong (home)',

'yuga(nursing)', 'Bogeon(preservation of health)', 'Pibok(clothing)' just before Korean Independence in 1945. But the 4 subjects changed to 'Kasa', 'Jaibong', 'Suye (embroidery)' and the 3 subjects changed 'Sileop and Kajeong(home affairs)' again.

2. The hours per week assigned to home economics education were higher in high school years than in low school years both in primary schools and middle or high schools.

3. Among various home economics subjects, the hours assigned to 'Jaibong' were higher than any other home economics subjects. But The hours assigned to the 'Kasa' tended to increase in high school years.

4. The purpos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chools before Korean Independence of Japan focused on fostering korean's loyalty to Japan Empire in the end and on cultivating womanly virtue etc. This tendency was more prominent in middle or high school than primary school.

5.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during about 10 years generally followed the home econmics education of Japanes Empire.

6.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in primary school for school boys was practised after 1955(The period of 1th curriculum). Before that time was practised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school girls.

7. Generally home economics education in Korean schools was weakened after Korea became Independant of Japanes Empire in 1945.

8.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fter Korean Independence tended to follow those of Japan. Among domains of the home economics the rate of contents of 'siksainghwal(life of foods)' tended to be largest, the rate of 'Jusainghwal(life of house) lowest in primary, while the contents of 'oensainghwal(life of clothing)' tended to be largest, the rate of 'Jusainghwal(life of house) lowest in middle education.

## I. 序論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적 관점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현재와 미래의 생활자로서 사회생활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정생활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 실천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과 교육의 성격은 단순히 실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이 아니라 여성 교양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은 新教育이 도입되었던 開化期부터 있어 왔던 것은 아니다. 일제 지배기에는 여성 교양교육이라기보다 직업교육, 실업교육, 기술교육적 성격이 강하였다.

정치적인 변화로 인하여 개화기부터 1955년 최초로 제 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 많은 교육의 변화가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신교육을 전개하였으나 10년도 채 못되어 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광복을 맞은 후에도 약 2년간 美軍政을 받았으며, 1948년에 가서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년이 채 못되어 6·25사변이 발발하여, 약 3년간 전쟁을 치렀다. 1953년 휴전이 되고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인 1955년에 가서야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전환점은 역시 8·15 광복이다. 광복 이전의 교육은 日帝의 교육이었고 광복 후의 교육은 우리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물론 약 2년간의 美軍政期가 있기는 하였으나

日帝 支配期의 교육처럼 全的으로 한국이 교육 개혁적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광복 후의 교육은 총체적으로 주체적 교육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광복 직전(주로 제 4차 조선교육령기)과 광복 직후(1955년 제 1차교육과정 제정 전까지)라는 대조적인 시기의 가정과 교육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까지의 가정과 교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직전 · 후의 초 ·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교육의 목표, 교육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데에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에 발행된 官報, 教科書, 教師用指導書 등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시기구분 및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광복 직 · 전후의 초 ·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을 비교하였다. ‘광복 직전’은 일제의 제 4차 조선교육령(1943년 공포)이 시행되었던 시기를 말하고, ‘광복 직후’는 1945년 광복 후부터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1941년 이후부터를 말한다. 그 이유는 1941년에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었는데, 초등교육은 통상 이 시점부터 제 4차 조선교육령 시행 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2) 비교한 내용은 주로 法制的 근거에 의하였다.

3) 비교내용은 가정과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가정과 교육목표, 가정과 교육내용에 한정하였다.

## II. 光復 直前 · 後의 時代的 狀況과 學制

### 1. 광복 직전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사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광복까지

의 교육기를 정치적 측면에서 統監府期(1906-1910년), 總督府期(1911-1945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독부기는 다시 제 1차 조선교육령기(1911.8-1922.2), 제 2차 조선교육령기(1922.2-1938.3), 제 3차 조선교육령기(1938.3-1943.4), 제 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로 구분할 수 있다(정재철, 1985). 이러한 교육정책의 전환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그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재철, 1985).

첫째,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愚民化 教育, 親日教育, 私學統制가 강화되었다.

둘째, 1910년 庚戌國恥를 겪게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國號는 朝鮮으로 바뀌고 식민지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庚戌國恥를 당한 초기 약 10년간 한국은 일본 경제를 위한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 상품의 판매지로 전락되었고, 이와 같은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는 가혹하고 야만적인 武斷統治를 단행하였다.

세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의 무단 통치는 文化主義的 統治方式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일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日本文化를 移植함으로써 文化抹殺政策을 폈다.

네째, 1937년 7월에 일제는 중국을 침략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대륙침략의 兵站기지로 전락하였으며, 戰時體制가 한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일본이 1941년 12월부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뒤부터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하여 생산 및 자원을 통합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정신적 유대를 긴밀화하여 사상적인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즉 內鮮一體가 강조 되고 同化政策이 내세워졌다. 소위 皇國臣民化 정책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1943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게 되자 한국 및 한국인을 전적으로 군사목적에 동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軍國主義的 全體主義 체제에 따라 완전히 軍部가 장악하였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군사능력의 배양이었

다.

1941년에 공포된 국민학교령 시행기부터 광복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학교의 학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1943년 제 4차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따라 같은 해에 공포된 고등여학교령에 나타난 고등여학교(오늘날 여자 중학교에 해당함, 단 전공과와 고등과는 여자 고등학교에 해당함)의 학제를 살펴보겠다.

일제는 1941년 2월 28일에 종전의 소학교령 및 동규정을 폐지하고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였으며(조선총독부 관보 제 4254호, 1941), 이것이 1945년 광복 때까지 적용되었다. 국민학교에는 초등과와 고등과를 두었으며 초등과의 수업연한은 6년이고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2년이었다.

1943년에는 고등여학교의 규정에 따라 중등 수준의 여학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등여학교에는 국민학교 초등과를 졸업한 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이었고 지역에 따라 2년으로 할 수도 있었다(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3). 또한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는 고등여학교 고등과와 전공과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2년이고 전공과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이었다. 그러나 지역 형편에 따라 1년으로 할 수도 있었다(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3).

## 2. 광복 직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포츠담 선언에 따라 한국은 광복을 찾았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가 떠난 뒤의 공백기간동안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한달이 채 못된 1945년 9월 8일에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그 다음날 조선총독부로부터 정식 항복을 받았다. 그 이튿날 미군정 장관이 임명되고 그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손인수, 1992).

1945년 9월에 문교행정기구인 학무국은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직원으로 인사를 개편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재개, 교원재교육, 교과서 편찬, 교수요목 제정 등 시급한 교육당면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시작하였다(정덕희, 1981). 1945년 11월에는 군정청 학무국장이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10개 분과 위원회로 된 朝鮮教育審議會를 구성하여 학무국에서 마련한 議題를 논의, 결정하게 하였다(손인수, 1992). 이 때에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弘益人間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하였고, 종래의 2元制였던 학제를 1元制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전기 3년-중등과, 후기 3년-고등과), 실업고등중학교 6년, 사범학교 3년, 대학 4년, 의과대학 6년, 의과 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원 1년이상으로 학제를 새로 제정하였다. 학기는 2학기제로 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 교과편제와 시간배당, 교수요목이 제정되어 194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1974).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다(대한민국 관보 號外, 1949년).

1950년 6월 2일에 문교부령 제9호로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이 제정되고(대한민국 관보 제 366호, 1950) 교수요목 심의가 착수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일단 중단되었다.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고 1951년 3월 30일에 문교부령 제16호 교과과정연구위원회 직제가 제정되어(대한민국 관보 제 448호, 1951). 교육과정 연구는 계속 되었다. 1952년에는 교육과정전체위원회가 구성되어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을 제정 공포하였다(대한민국 관보 호외, 1954). 그 후 문교부는 계속 교육과정 개정을 하여 1955년 8월 1일에 제 1차 교육과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대한민국 관보 제 1374호, 1955). 결국 미군정기에 제정되었던 교수요목은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까지 10여년간 운영되었다.

1945년 광복이 된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5년 9월 16일에 軍政廳 學務局은 최초로 교육방침을 발표하였다(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56). 그 해 9월 22일에 다시 教育方針과 교육상 유의할 점을 시달하였는데(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이 때의 국민학교는 6년제로 하였으며 해방 직전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에 高等科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가정과 과목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5년 12월 21일에 조선의 새교육지침과 아울러 국민학교교과편제와 주간시간배당이 다시 시달되었는데(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1974), 이 때부터 국민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리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국민학교에 가정과(가사) 과목이 설치되었다.

광복이 되자 미군정청은 1945년 9월 28일에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의 재개를 시달하였는데, 당시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는 4년제로서 종전의 제 4차 조선교육령 및 고등여학교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정덕희, 1981). 그러다가 1946년 9월에 학제를 변경하여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된 6년제 중학교를 편성하였다(군정청 문교부, 1947). 그러다가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이 제정(대한민국 관보 호외, 1949)되면서 중학교는 4년제로 되었고, 고등학교는 2년 내지 4년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1950년 3월에 교육법이 개정(대한민국 관보 호외, 1950)되면서 중학교 4년제, 고등학교 3년제로 바뀌었다. 1951년 3월에 다시 교육법이 개정(대한민국 관보 제442호, 1951)되면서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로 바뀌게 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다.

### Ⅲ. 光復 直前 · 後의 家政科 教科의 比較

#### 1.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순으로 살펴보고기로 하겠다. 1941년에 공포된 국민학교령에 의하여 국민학교는 6년제인 초등과와 2년제인 고등과로 2원화 되어 있으며(조선총독부 관보 제 4254호, 1941), 1941년에 제정된 국민학교 규정에 의하면(조선총독부 관보 제 4254호, 1941), 국민학교의 예능과 속에 여학생을 위하여 '가사 및 재봉' 과목이 있으며 주당 교수시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과는 '재봉', '가사'에 각각 4,5,6학년 3시간씩 또는 각각 3,4,4시간씩 배당되었고, 2년제의 고등과는 '재봉', '가사'에 각각

<표 2-1> 광복 직전 국민학교 초·고등과 가사 및 재봉의 주당 교수시수표(1941년)<sup>10)</sup>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등 과	-	-	-	재봉초보 3(3)	재봉초보 3(4)	재봉초보 3(4)
	-	-	-	가사초보 3(3)	가사초보 3(4)	가사초보 3(4)
총시수	23	25	27	32	34	34
고 등 과	재봉 일반 5	재봉 일반 5	-	-	-	-
	가사 일반 5	가사 일반 5	-	-	-	-
총시수	33-35	33-35	-	-	-	-

주 : ( )안은 "부득이한 경우 교과 및 과목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시수임. 조선의 대부분의 국민학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음(정덕희, 1980).

1,2학년 5시간씩 배당되었다. 가정과 과목의 시수를 전체 시수와 비교해 볼 때 초등과는 약 18-24%를 차지하였다. 고등과는 약 29%를 차지하여 고등과의 가정과 과목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4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국민학교의 교과편제와 週間時間配當은(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1974), 가정과 교과목은 '요리', '재봉'이었으며, 4,5,6학년 여학생이 이수하였다. 주당 시간배당은 각각 3시간씩이었다. 그러다가 1946년 9월 1일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새로운 학제에 따라 국민학교교과편제 및 연간시간배당을 제정하였으며(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종전의 '요리', '재봉'이 통합되면서 '가사'로 바뀌었고, 5,6학년 여학생에게 각각 연간 80시간이 배당되었다. '가사'의 시간배당 비율은 주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시간 정도 되며 전체 시수의 약 6%로서 광복 직전의 약 18-24%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한편 1951년 2월 26일에 제정된 戰時下 교육특별조치요강(합종규, 1976)에 따라서 戰時下 교과목 및 연간시간배당표에 5,6학년 여학생에게 '가사'가 70시간이 배당되었다. 이것을 주당 시수로 환산하면 약

〈표 2-2〉 광복직후의 국민학교 가정과 과목의 시간배당(단위: 시간)<sup>32)33)</sup>

시 기	과목명	4학년	5학년	6학년
1945.12.21 미군정초기	요리·재봉	주 3시간(여)	주 3시간(여)	주 3시간(여)
1946.9.1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후	가 사		연 80시간(여)	연 80시간(여)
1951.2.26 전시하의 교육 특별조치요강	가 사		연 70시간(여)	연 70시간(여)
1954.4.20 국민학교 교과과정	실 과	주 80-110분 남녀 공통	주 80-120분 남녀 공통	주 90-130분 남녀 공통

2시간정도가 되며 전체 시수의 약 7%를 차지한다. 그러다가 1954년에 문교부령 제 35호로 국민학교 교과과정 시간배당기준령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민학교의 가정과 교과목인 '가사'는 없어지고 대신 '실과'로 바뀌었다(대한민국 관보 호외, 1954). 이 때부터 종전과는 달리 가정과 교과는 남녀가 공통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1955년 8월 1일 국민학교 교과과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교육과정의 모색기, 定礎期로서 미군정기에 제정된 교수요목에 의해 5,6학년 여학생만이 '가사'를 이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정덕희, 1981). 이 시기의 국민학교 가정과 과목의 교과편제 및 주간시간배당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광복 직전의 초등 가정과 과목은 '재봉'과 '가사'였으며 주당 3-4시간 정도 배당되어 전체 시수의 약 18-24%를 차지하였으나, 광복 직후에는 '요리', '재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가사'로 바뀌었으며, 1954년에는 '실과'로 바뀌면서 남녀학생이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되었다. 가정과의 시수의 비중은 광복 직후가 광복 직전보다 낮아졌다.

한편 1943년 3월 27일에 공포된 고등여학교 규정(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3)에 따르면 가정과 과목은 '가정', '육아', '보건', '피복'의 4과목이었다.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별, 학년별 매주 교수시수는 〈표 2-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 '육아',

'보건'은 묶어서 운영되었고, '피복'은 따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상대적 시간 비중은 '피복'이 높았다. 가정과 과목의 시수를 전체시수와 비교해 보면 4년제인 경우는 약 17%-22%를 차지하였으며, 2년제는 약 22%, 3년제는 20%를 차지하여 평균적으로 약 20%

〈표 2-3〉 고등여학교 수업연한별 가정과 각 학년 매주 교수시수표(1943)<sup>34)</sup>

구 분	과 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 년 제	가정				
	육아	2	2	4	4
	보건				
	피복	4	4	4	4
매주 전교과목 총교수시수		36	36	37	37
2 년 제	가정				
	육아	4	4		
	보건				
	피복	4	4		
매주 전교과목 총교수시수		37	37		
3 년 제 (야간)	가정				
	육아	2	3	3	
	보건				
	피복	3	3	3	
매주 전교과목 총교수시수		25	25	25	

〈표 2-4〉 고등여교 가정과 과목 교과편제 및 주당 교수시수표(1945.9.30)<sup>32)</sup>

구 분	가 사	재 봉	수 예	계
1학년	2	2	1	5(33)
2학년	2	3	1	6(32)
3학년	4	3	1	8(35)
4학년	4	4	1	9(36)

註 : ( )안은 주당 총시수임.

내의를 차지하였다.

한편 광복이 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9월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는 10월 1일부터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때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의하면(중앙대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고등여학교의 가정과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은 〈표 2-4〉와 같다.

〈표 2-4〉에서 보듯이 광복 직전의 '가정', '보건', '육아', '피복'과목이 '가사', '재봉', '수예'로 바뀌었다. 그러나 가정과의 주당 총 시수는 1, 2, 3, 4학년 각 5, 6, 8, 9시간으로 전체 시수의 15%-25%를 차지하여 광복 직전의 약 20% 내외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46년 9월에 다시 학제가 6-6-4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등학교는 6년제가 되었는데,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교수요목이 제정되고 교과편제와 연간교수시간이 배당되었다. 그 당시 발표된 교수요목집에 배당된 각 과목의 시간수를 종합하여 보면 〈표 2-5〉와 같다(군정청 문교부, 1946, 1947).

〈표 2-5〉에서 보면 고급중학교가 초급중학교보다 가정과 과목에 대한 시간배당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고급중학교에서는 '가사'의 비중이 가

장 높아졌고 '재봉'과 '수예'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1954년에 다시 교육법시행령상 중학교 교과과정시간배당기준령이 개정되면서(대한민국 관보 호외, 1954) 종전의 '가사', '재봉', '수예'는 '실업·가정'으로 바뀌면서 남자는 실업, 여자는 가정이 이수할 교과로 되었다. 필수과목 속에 '실업·가정'을 각 학년 주당 5시간씩 배당하였다.

초급중학교의 각 가정과 과목의 시간배당은 주당 2시간 풀이며, 합치면 주당 6시간 풀이 된다. 고급중학교의 경우는 '가사'는 1,2학년은 주당 6시간, 3학년은 8시간 풀이며, '재봉'은 2시간 풀이며, '수예'는 1,2학년은 약 4시간 풀이고 3학년은 5시간 풀이 된다. 이러한 비중은 광복 직전의 비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 광복 직전과 직후의 가정과 교육의 교과편제, 주당 시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한 마디로 광복 직후 초기에는 교과목 명칭이 그대로 답습되고, 가정과 교과가 전체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게 높았으나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가정과의 교과목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가정과의 비중도 차차 낮아져 갔다.

## 2. 교육목표

교육목표 역시 초등교육, 중등교육 순으로 살펴 보겠다. 광복직전의 국민학교에서의 가정과 과목은 '가사'와 '재봉'이었다.

'가사'의 교육목표를 초등과와 고등과를 망라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 관보 제 4254호, 1941).

첫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자의 임무를 알게 하

〈표 2-5〉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과편제 및 연간시간배당(1946.9)<sup>3)</sup>

구 분	초 급 중 학 교			고 급 중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가 사	74	74	74	226	226	300
재 봉	74	74	74	74	74	54
수 예	74	74	74	148	148	185

고 실무를 습득시켜 부덕을 함양시킨다.

둘째,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에 보국하는 정신을 함양한다.

세째, 예법을 중시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순풍미속의 유지하는 태도를 함양시킨다.

네째, 가사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섯째, 근로의 습성을 길러 절약, 이용, 청결, 정돈하는 태도를 기른다.

종합해 보면 '가사'의 교육목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주부로서의 자질, 여성으로서의 예절, 근검, 절약의 정신을 함양하는데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재봉'교육의 목표를 초등과와 고등과를 망라해서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 관보 제 4254호, 1941).

첫째, 보통 의류의 재봉에 익숙하게 하여 부덕을 함양한다.

둘째, 운침, 간단한 의류의 재단, 봉제법 및 수선법, 재료의 선택법 및 의류의 정리법, 세탁법, 보존법에 대하여 알게한다.

세째, 가정을 다스려서 나라에 보국하는 정신을 함양한다.

네째, 절약의 습관, 思考, 考案의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여성으로서의 품성을 중히 여길줄 알게 한다.

여섯째, 용구의 적절한 사용법 및 정리법을 익힌다.

'재봉'의 교육목표는 '가사'와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의복 관리와 관련한 제반 기능을 습득시키는 데에 강조점을 둔 점이 다르고, '가사'보다는 기술교육적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직후의 국민학교에서의 가정과 과목은 1945년 12월에 제정된 새교육지침 및 교과편제에 따라 '요리'와 '재봉'이었다. 그러나 1946년 군정청 문교부에서 제정한 교수요목집에는 '요리'와 '재봉'이 '가사'로 통합되었다(군정청 문교부, 1946, 1947).

'가사'의 교육목표는 우리나라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성 특유의 임무를 알게 하고 가정생활 실무를 습득하여 부덕함양에 밑거름이 되게 하고,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 향상하는데 힘쓰게 하는 데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신, 태도, 기술, 습관, 지식을 함양한다.

둘째, 가정생활의 모든 관계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른다.

세째, 미풍양속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합리적인 생활을 개선 향상 하게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 생활방식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한다.

여섯째, 근로정신을 체득케 한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광복직전의 가정과 교육목표는 궁극적으로 일본에 충성하는 臣民을 양성하는데 두고, 부덕의 함양, 근검 절약정신의 함양,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적 태도적 소양함양에 두었다. 그러나 광복직후에는 이러한 목표 이외에 사고능력 함양과 민주적 생활 태도함양을 목표로 추가한 점이 다르다. 또한 광복 직전에는 기술, 실업적 교육에 가정과 교육의 목표가 강했다면 광복 직후에는 여성의 정신적 교양교육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 생활방식에 관한 목표는 광복 전에는 전혀 없었던 덕목이다.

제 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됨에 따라 1943년 3월 27일에 고등여학교 규정이 공포되었고(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3), 여기에 나타난 가정과(가정, 육아, 보건, 피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국가(여기서는 일본)의 본의를 명백히 안다.

둘째, 皇國 여자의 임무를 자각한다.

세째, 가정에서의 실무를 습득시킨다.

네째, 근로의 습성을 길러 주부와 母로서의 德操를 함양한다.

앞에서 보듯이 광복 직전의 중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과 본래의 교과본질에서 벗어나 일제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을 함으로써 정치적 교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광복 직후의 가정과 목표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나타난 가정과(가사, 재봉, 수예) 교육과 관련



된 몇 가지 목표를 살펴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에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을 기른다.

둘째, 자신의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중견시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네째, 개성에 맞게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고, 일반적 소양을 높이며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가정과 교육의 목표 중에서 광복 직전에 강조되었던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가정생활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함양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광복 직전의 기술, 실업적 교육목표, 황국국민을 양성하는 목표에서 여성 교양적 교육목표, 장래 직업에 관한 지식, 진로의식, 전문적 기능함양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광복 직전 초등가사 교육내용<sup>21)22)23)27)28)</sup>

조선총독부 1941년 발행 4학년 초등가사 교재			조선총독부 1942년 발행 5학년 초등가사 교재			조선총독부 1943년 발행 6학년 초등가사교재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1	나의 하루	5	1	물건사기	3(2)	1	가계(부)	4(3)
2	청소방법	3	2	취사시 주의사항	3(2)	2	물고기요리	4(3)
3	올바른 복장	2	3	단오절 맞이	5(3)	3	차와 과자	4(3)
4	식사방법	2	4	밥과 된장국	5(4)	4	고기요리	4(3)
5	우산, 비옷, 장화	4	5	초무침	5(3)	5	창문 및 집안 손질하기	4(3)
6	세탁	4	6	도시락 만들기	4(4)	6	노인모시기	4(3)
7	여름철 위생	2	7	목욕탕	3(3)	7	식품의 저장	4(3)
8	정원손질	2	8	여름에 마실 것들	2(2)	8	개인위생	2(1)
9	우물과 상수도	2	9	취사도구 손질	4(3)	9	응급처치	4(3)
10	하수도와 화장실	4	10	쓰레기통	2(1)	10	감자요리	5(4)
11	가벼운 상처 처치	2	11	여름철 일본떡(경단)	3(2)	11	연료	4(3)
12	계사	2	12	단무지 담그기	4(3)	12	가정방호	4(4)
13	불조심과 문단속	3	13	달걀요리	5(3)	13	김장김치담그기	5(3)
14	과일먹는 법	2	14	간병	3(3)	14	카레라이스	4(4)
15	겨울철 위생	2	15	대청소	4(3)	15	연중행사	4(4)
16	연말에 할일	3	16	여러가지 찬합음식	5(4)	16	우동	5(5)
17	국기	2	17	건국일(기원절) 축하	5(4)	17	저축과 보험	4(3)
18	장담그는준비(콩매주)	2	18	전빵(국민식)	5(3)	18	유아(젓박이)보전	3(3)
19	노인섬기기	3	19	완구(장난감)	2(2)	19	보건식	5(4)
20	애기돌보기	3	20	등불(조명), 등화관제	3(2)	20	여자의 임무	3(3)
21	어린이날의 차림(雛祭)	2	21	별식으로 초대하기	5(4)			
22	즐거운 가정	3						
시간계		59	시간계		80(60)	시간계		80(65)

주 : ( ) 안은 초등학교 6년제 가사 매주 교수시수에 의한 것임.

( ) 밖은 조선에 있어서의 대부분 국민학교 초등과에서 적용한 교수시수임.

〈표 3-2〉 광복 직전 초등재봉 교육내용<sup>24)25)26)29)30)31)</sup>

조선총독부 1943년 발행			조선총독부 1944년 발행			조선총독부 1944년 발행		
4학년 초등재봉 교재			5학년 초등재봉 교재			6학년 초등재봉 교재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과	과 제 명	시간배당
1	단정한 몸차림	1	1	옷	2	1	옷옷	30
2	재봉용구	1	2	직물	1	2	솜벌레방저, 옷보관	2
3	흡질	5	3	셔츠	14	3	세탁	
4	누비기	7	4	배가리개	6	4	활동복(작업복)	15
5	끈주머니	3	5	형질조각이용	22	5	직물(옷감)	2
6	세탁	4	6	속치마	12		홀치기 염색	
7	오재미모양 바늘꽃이			모자		6	작업용 가까운	10
8	손가방	8		재봉틀(미싱)	6	7	김기	
9	앞치마	13		바느질 기록		8	의류생활	
10	우정리	1				9	국민복장계획	
11	여러가지 주머니							
12	속옷만들기	12						
13	부러진 귀떨어진 바늘을 위한							
14	도시락 보자기 행사							
시간계		55	시간계		63	시간계		59

주 : 시간수 표시가 없는 것은 개인이 틈틈히 집에서 해보는 응용연습 내용임.

3. 교육내용

교사용 교과서 및 학생용 교과서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광복 직전·후의 가정과 교육내용을 비교하였다.

1941년, 1942년, 1943년에 각각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4,5,6학년의 초등 가사, 초등 재봉의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 〈표 3-2〉와 같다.

광복 후 최초로 국민학교에 배부된 교과서는 재봉 및 수예로서 1946년에 발행되었다(중대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1974). 그리고 1946년 9월에 교수요목이 제정됨에 따라 초등가사 5,6학년용이 1947년 7월에 발행되었다(군정청 문교부, 1947, 1948). 광복 직전에 사용하던 4,5,6학년 초등가사, 초등재봉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초등가사라는 이름으로 5,6학년용을 각각 만들었다. 단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에서 보면 광복 후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우리 고유의 내용을 약 40% 정도 설정한 것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약 40%를 차지하며, 종전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표 3-3〉 광복 직후 초등가사 교과서 내용(1947)<sup>2)</sup>

5학년		6학년	
1. 집안일	**	1. 예법	**
2. 바느질	#	2. 영양	#
3. 머리수건	#	3. 맑은 장국	**
4. 앞치마	*	4. 조끼뜨기	**
5. 요리할 때의 주의	*	5. 불조심과 문단속	*
6. 상보기와 상드리기	**	6. 양말김기	#
7. 과일 먹는법	*	7. 도시락	*
8. 채소의 지식	#	8. 노인섬기기	*
9. 시금치나물	#	9. 덧버선	**
10. 밥	*	10. 떡국	** #
11. 토장국	**	11. 식사예법	*
12. 고구마과자	**	12. 병구완	*
13. 나박김치	** #	13. 깎두기	** #
14. 수제비	** #	14. 도시락주머니	*
15. 버선뜨기	**	15. 땃나물	**
16. 헌옷김기	*	16. 신과 우비의 손질	*
17. 결레	**	17. 앞치마	*
18. 먼지털이	**	18. 과자	*
19. 청소	*	19. 화재	** #
20. 응급치료	*	20. 어린이 시중	*
21. 이부자리	**		
22. 화목한 가정	*		

\* 광복 직전의 일제의 초등가사 교과서 내용과 같은 것임.  
 \*\* 한국고유의 새로운 내용임. 그러나 일부는 일제의 초등가사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친 것도 있음.  
 # 광복 직전의 일제의 교과서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꾼 것임.

〈표 3-4〉 광복직전과 직후의 중등가사교과서 내용의 비교 91213201

조선총독부 중등가사 제1권 (1941년 발행)	김정희 중등가사교본 상권 (1947년 발행)	유영준 중등가사교본 (1948년 발행)	손정규의 중등가사교본 (1948년 발행)	손정규 중등가사 교본 요리실습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들의 합일</li> <li>2. 학비 출납</li> <li>3. 주저의 청소</li> <li>4.택지의 이용</li> <li>5.복장의 세탁</li> <li>6.우비의 손질</li> <li>7.식기의 손질</li> <li>8.요리용 연료</li> <li>9.차내기</li> <li>10.밥과 죽</li> <li>11.제철의 옷나물</li> <li>12.주거손질</li> <li>13.음료와 과자</li> <li>14.새끼 식사</li> <li>15.비상시 지킬일</li> <li>16.폐품재활용</li> <li>17.연중행사</li> <li>18.노인모시기</li> <li>19.위생</li> <li>20.실내조명</li> <li>21.도시락 싸기</li> <li>22.즐거운 우리집</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옷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옷의 사명</li> <li>2) 옷감</li> <li>3) 의복지의 선정</li> <li>4) 옷의 정리</li> <li>5) 자리잡는 법과 빨래</li> <li>6) 물들임과 빗질내기</li> <li>7) 옷의 보속품과 구</li> <li>8) 옷의 경제</li> </ol> </li> <li>2. 음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식의 사명</li> <li>2) 영양소</li> <li>3) 음식의 가치</li> <li>4) 식량</li> <li>5) 일상식품</li> <li>6) 양념감</li> <li>7) 기호식품</li> <li>8) 식품보존</li> <li>9) 찬마련</li> <li>10) 조리법</li> <li>11) 연료</li> </ol> </li> <li>3. 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의 사명</li> <li>2) 주택개량</li> <li>3) 주택선정법</li> <li>4) 주택건축 계획</li> <li>5) 가옥건축 순서</li> <li>6) 각방설비</li> <li>7) 위생설비</li> <li>8) 오물처리</li> <li>9) 옥외설비</li> <li>10) 청소와 수선</li> <li>11) 기구의 손질</li> <li>12) 재난</li> <li>13) 이사</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 1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생활</li> <li>2. 우리집</li> <li>3. 목면에 대한 연구</li> </ol> </li> <li>중 2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와 국가</li> <li>2. 식사와 영양</li> <li>3. 옷을 잘 만지는 방법</li> <li>4. 의복감 선택</li> <li>5. 비단연구</li> <li>6. 위생과 가정상비약</li> <li>7. 좁기손질</li> <li>8. 연료다루기</li> <li>9. 비상시 가족</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 1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의 살림살이</li> <li>2. 우리집</li> <li>3. 무명에 대한 연구</li> </ol> </li> <li>중 2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와 나라</li> <li>2. 먹기와 영양</li> <li>3. 삼에 대한 연구</li> <li>4. 빗질과 색에 대한 모양</li> <li>5. 비단에 대한 연구</li> <li>6. 위생과 집안상비약</li> <li>7. 세간 그릇의 손질</li> <li>8. 빨감</li> <li>9. 비상시의 대책</li> </ol> </li> <li>중 3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의 발달과 살림집</li> <li>2. 집의 위생</li> <li>3. 집안 살림살이 방식</li> <li>4. 양털에 대한 연구</li> <li>5. 인조직물에 대한 연구</li> <li>6. 교직물에 대한 연구</li> <li>7. 음식준비</li> <li>8. 얼룩 빼기</li> <li>9. 옷정리와 설비</li> <li>10. 가품과 가족</li> <li>11. 집안의 경제</li> </ol> </li> <li>중 4학년(고등 1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양과 경제</li> <li>2. 음식과 집안의 햇일</li> <li>3. 옷에 대한 역사적 찾아보기와 현재</li> <li>4. 빨래의 원리</li> <li>5. 물들이기</li> <li>6. 이부자리의 복장의 부속품</li> <li>7. 살림집과 세간의 관계</li> <li>8. 가족 문제</li> <li>9. 빨감에 대한 연구</li> <li>10. 방담합장치의 연구</li> </ol> </li> <li>중 5학년(고등 2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림집과 설계</li> <li>2. 어우리 살림집과 사회생활</li> <li>3.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수선</li> <li>4. 음식 간수하기</li> <li>5. 우리음식의 특징과 양념</li> <li>6. 즐기는 음식과 먹이의 중독</li> <li>7. 음식과 전염병</li> <li>8. 집안경제와 물건사기</li> <li>9. 생활의 향상</li> </ol> </li> <li>중 6학년(고등 3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집의 경제</li> <li>2. 집안 보살피기</li> <li>3. 건강과 병에 대한 주의</li> <li>4. 아기 기르기</li> <li>5. 국민생활</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학년의 실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리하는 왜 하나</li> <li>2. 조리용 연도</li> <li>3. 가사 실습실</li> <li>4. 환밥과 토장국</li> <li>5. 보리밥과 고추장찌개</li> <li>6. 팔밥과 나물</li> <li>7. 오시루꼬(단팔죽)와 경단</li> <li>8. 계반기구 정돈은 이렇게 하자</li> <li>9. 맑은 장국</li> <li>10. 장산적과 장아찌</li> <li>11. 새우젓찌개와 북어무침</li> <li>12. 오이장아찌와 생선조림</li> <li>13. 풋김치</li> <li>14. 구이(고기·복어)</li> <li>15. 밀국수</li> </ol> </li> <li>3학년의 실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액요리(定額料理)</li> <li>2. 송편</li> <li>3. 카래라이쓰</li> <li>4. 고평탕</li> <li>5. 간단한 반상</li> <li>6. 온면상 차리기</li> <li>7. 차킨라이쓰</li> <li>8. 도넛</li> <li>9. 김치, 깍두기</li> <li>10. 점심상</li> <li>11. 도시락</li> <li>12. 샌드위치와 도마도 셀러드</li> <li>13. 화전·화채·제리</li> </ol> </li> <li>4학년의 실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면상</li> <li>2. 탕수육</li> <li>3. 전과</li> <li>4. 떡복기와 약식</li> <li>5. 만두와 수정과(水煎果)</li> <li>6. 고추장과 장</li> <li>7. 젓갈담기</li> <li>8. 먼거담과 찜심(찬합찜심)</li> <li>9. 상차림에 대하여</li> <li>10. 여름철의 별식</li> <li>11. 생선다루기</li> <li>12. 냉면</li> <li>13. 초대연습</li> </ol> </li> <li>5학년의 실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요리와 조미료</li> <li>2. 주안상</li> <li>3. 신선로</li> <li>4. 장김치와 약과</li> <li>5. 정월요리 연구</li> <li>6. 제물에 대하여</li> <li>7. 단채식</li> <li>8. 洋料理는 어떠한 것인가</li> </ol> </li> <li>6학년의 실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국요리에 대하여</li> <li>2. 떡에 대하여</li> <li>3. 병자음식</li> <li>4. 샌드위치</li> <li>5. 쫄면떡 음식</li> <li>6. 과자 각종</li> <li>7. 반상차림</li> <li>8. 회합요리</li> <li>9. 다과회</li> <li>10. 양식요리</li> <li>11. 자유연구 발표</li> </ol> </li> </ol>

고친 내용은 약 20%정도 된다. 분야별로 보면 식생활이 약 40%, 의생활이 약 30%, 기타 주생활, 간호, 위생, 예법, 가족관계, 가족관리 등이 약 30%를 차지하였다. 광복 직전과 직후의 중등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를 보면 광복직후의 중등가사의 주요 특징은 초등가사와 광복 직전의 일체의 내용과는 거의 다르게 구성한 점이다. 주요 특징의 하나는 광복 직전에는 의,식,주 이외도 가정생활에 필요한 광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한 데 비해, 광복 직후에는 의생활과 食생활 住생활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의생활 영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김정희(1948)가 지은 교과서에는 의·식·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점도 광복 직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점이다.

#### IV. 結論

지금까지 광복 직전과 직후의 우리나라 초·중등 가정과 교육을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교육목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이것을 중심으로 광복 전과 광복 후의 가정과 교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첫째, 광복 직전의 초등 가정과 과목은 '재봉'과 '가사'였으며,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요리', '재봉'으로 바뀌었고, 1946년에는 '요리', '재봉'이 통합되어 '가사'로 바뀌었다. 1954년에는 '가사'가 실과로 바뀌었다.

광복 직전의 중등 가정과 과목은 '가정', '육아', '보건', '피복'의 4과목이었으나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가사', '재봉', '수예'로 바뀌었다. 1954년에는 다시 실업·가정으로 바뀌었다.

② 광복 직전·후를 통털어서 가정과 과목은 학년이 높을 수록, 학교급이 높을 수록 배당시간이 많았다.

③ 광복 직전까지는 가정과 과목 중에서 재봉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가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 수록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가사의 비중은 높았다.

④ 광복 직전까지 초등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여성으로서의 도리, 즉 예법, 품성, 청결, 절약, 정돈 등의 강조와 아울러 의생활과 관련한 지식과 기능이 강조되었다. 한 마디로 기술,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다. 광복 직후에는 직전과 구체적 목표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 않으나 민주주의 생활방식에 관한 목표가 추가된 점이 다른 점이다.

광복 직전의 중등교육에서의 가정과 목표는 황국신민으로서 여성의 임무를 자각케 하고 부덕을 함양 시키는데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목표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역시 기술·실업 교육으로서의 가정과의 목표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광복 직후에는 일반교양교육이 강조되었고 진로(가정전업주부)와 관련한 목표가 강조되었다.

⑤ 광복 직후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은 대체로 일체의 교육방식을 여러 측면에서 모방내지 답습을 하였다. 물론 교육목표나 교과편제 등에서는 한국주체적인 진로를 모색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여의치 못하였다.

⑥ 국민학교의 가정과 과목은 종전까지는 여학생만 이수하였으나 1954년 문교부령 제 35호로 국민학교 교과과정 시간배당기준령이 공포되어 '실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남녀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이 되었고,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⑦ 초·중등학교를 통털어서 가정과 과목의 비중은 광복직후 다소 약화되었다. 이것은 일체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기술, 실업교육을 지향하였던 반면 이를 일반교양교육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⑧ 가정과의 교육내용은 일체의 것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전면적인 탈피는 하지 못하였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광복 직후의 교육내용은 일체의 내용을 40%정도 답습하였고, 일부 내용은 우리의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 반면 중등 가정과 교육에서는 광복 직후 비교적 일체의 내용을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복 직후는 직전보다 초등의 경우 식생활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생활, 주생활 순으로 구성되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의생활 영역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차차 의·식·주의 영역이 골고루 취급되었다. 전반적으로 광복 직전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영역이 광범하게 취급되었으나 광복 직후에는 의·식·주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 【參考文獻】

- 1) 군정청 문교부(1946, 1947),各科 교수요목집(1, 2, 3, 4, 5권),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 2) 군정청 문교부(1947), 초등가사 6학년용.
- 3) 김정희(1947), 중등가사교본 상권, 서울: 문화당 주식회사.
- 4) 내무부 치안국(1956), 미군정법령집, 서울: 내무부 치안국
- 5) 대한민국 관보 호외(1954), 1954년 4월 20일자.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 6) 대한민국 관보(1949), 제 1호, 1949년, 12월 31일자, 법률제86호 교육법.
- 7) 대한민국 관보(1950), 호외 其三, 1950년 3월 10일자, 법률제118호 교육법중 개정 법률 제 366호, 1950년, 6월 2일자, 문교부령 제9호 교수요목제정 심의회규정 제정.
- 8) 대한민국 관보(1951), 제442호 1951년 3월 20일자, 법률제178호 교육법중 개정법률 제 448호, 1951년 3월 30일, 문교부령 제16호 교과과정 연구위원회 직제 제정.
- 9) 대한민국 관보(1955), 제1374호,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 45호, 46호 초, 중,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과정.
- 10) 문교부(1952), 초등가사 5, 6학년용, 서울: 한국 교과서주식회사.
- 11) 손인수(1992),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 12) 손정규, 조기홍, 표경조, 주월령(1948, 1949), 중등가사교본(1,2,3학년이상 3권 1948, 서울: 동지사 동3권 1949, 서울: 장왕사), 4(I), 5(II), 6(III)학년 요리실습편(2,3,4,5,6학년이상)4권 1949, 서울: 장왕사).
- 13) 유명춘(1948), 중등가사교본, 서울: 동방문화사.
- 14) 정덕희(1980), 한국의 가정과교육 변천 관한 연구 I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13집.
- 15) 정덕희(1981), 한국의 가정과교육 변천 관한 연구 II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14집.
- 16) 정재철(1985), 일제의 대한민국식민지교육정책사, 서울: 일지사.
- 17)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43), 1943년 3월 27일자, 칙령제36호 중등학교령.
- 18)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1943), 1943년 3월 2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9호, 고등여학교 규정.
- 19) 조선총독부 관보(1941), 제4254호 1941년 3월 31일, 칙령제148호 국민학교령, 조선총독부령 제90호 국민학교 규정.
- 20) 조선총독부(1941), 중등가사 제1권,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1) 조선총독부(1941), 교사용 초등가사 제 4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2) 조선총독부(1942), 교사용 초등가사 제 5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3) 조선총독부(1943), 교사용 초등가사 제 6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4) 조선총독부(1943), 교사용 초등재봉 제 4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5) 조선총독부(1944), 교사용 초등재봉 제 5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6) 조선총독부(1944), 교사용 초등재봉 제 6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7) 조선총독부(1942), 아동용 초등가사 제 5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8) 조선총독부(1943), 아동용 초등가사 제 6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29) 조선총독부(1943), 아동용 초등재봉 제 4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30) 조선총독부(1944), 아동용 초등재봉 제 5학년, 경성: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31) 조선총독부(1944), 아동용 초등재봉 제 6학년,

- 경성 :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
- 32)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 연구소(1974), 문  
교사,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국.
- 33) 함종규(1976),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 : 숙대출판사.